루마니아 선교편지

2022. 6. 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슬픔과 아픔이 드리워진 주변 상황을 보며 사랑과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사랑과 평화가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루마니아 소식 전해 올립니다.

♣ 회복된 일상에 감사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에도 많은 피난민들이 들어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선교사와 현지교회들이 계속하여 우크라이나 각 지역으로 구호품을 보내거나 직접 위험 지역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희 이웃집에도 피난민들이 세를 얻어 살고 있는데, 젊은 엄마들이 남편은 전쟁에 참여하느라 아이들만 데리고 와서 지내는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루마니아도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나마 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역을 제한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고, 회복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고달픈 집시들의 삶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집시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집시들의 삶은 여러 면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당장 먹고살기에 급급하니 자녀교육에 관심도, 부모가 그럴 능력도 없고, 학교도 역량 밖이라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 졸업으로 학교를 마칩니다. 여자아이들은 열셋, 열네 살에 가정을 이뤄 아이를 낳고, 그나마 책임감이 없는 남자들은 쉽게 여자와 아이를 버리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고, 또 다른 남자를, 여자를 만나 배다른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들에게 성경적인 올바른 삶을 가르쳐도,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는 적습니다. 교회에서 눈이 맞아 각자 자기 가정을 버리고 나간 성도, 교회 일군이 되겠다더니 외국에 돈 벌러 가서 죄의 길로 빠져 안타깝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늘 절제하며, 봉사하며 사회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치오비와 부인 플로리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집시로서는 노처녀 나이로 시집을 갔던 아이가 유산 후, 버림받고 돌아와 교회를 다시 나오면서 하는 말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찾아 나갔지만 여기처럼 살아있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살아 있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

펠디와라 교회는 성도들의 소그룹 양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6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3개월간의 방학 기간에 청소년 제자훈련과 기도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뜨르너베니 교회는 파네 전도사가 지내던 사택을 비롯하여 기존건물 1층을 최대한 예배당 공간으로 넓혀 확보하고, 그 위에 최소한의 공간으로 사택과 소모임 공간을 올리는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껏 모았던 일부 건축 헌금을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사용하느라 턱없이 모자라지만, 시간이 걸려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도 힘껏 참여하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진행하도록 권면 하였습니다.

♣ 주일학교와 블러데니 교회

아라치 교회는 코로나 중에도 쉼 없이 소그룹 제자훈련을 해왔지만, 주일학교 전체 모임은 2년 반 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한 달 전부터 전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며 초청하였는데, 아이들도 모임을 기다려서인지 많은 아이들이 다시 주일 학교에 나와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성장한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디누 전도사는 브라쇼브 근처의 '블러데니'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는 현지 목회자의 요청으로 매주 노방전도를 같이 했고, 그렇게 모아진 청소년들에게 말씀 묵상과 악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쇼브 교회의 주일학교가 코로나등의 영향으로 많이 약해졌는데, 다시 열심을 내어 주일학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브라쇼브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서로 돕고 함께 세워가야 할지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브라쇼브주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주일학교를 세우는 데에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도전하며,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자와 서로 협력하여 교사양성학교를 재가동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지도자 기도모임

수 년 동안 현지교회 지도자들이 쉼 없이 매주 함께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았던 기도공동체였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 모임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비록 사정으로 인해 적은 수가 모일지라도 기도 모임을 쉬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제 다시 매주 모이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와 협력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2. '브라쇼브'주의 교회들이 주일학교 부흥에 힘을 다하도록
3. 지도자 기도 모임이 연합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굳건해지도록
4. 가족 모두가 처한 곳에서 믿음에 거하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루마니아 배만주.이명자(경진.예진)선교사

후원 계좌 : 외환은행 010-04-06389-596(GMS배만주)
연락처 : LG폰 070 8625-7488